

經濟發展과 企業家

金 德 中

〈西江大學校經商大學教授·經博〉

I. 머릿말

「80 년대에 輸出 100 億弗 및 1 人當 國國所得 1,000 弗 달성」이라는 經濟目標을 설정한 第3次 5 個年計劃의 첫 해인 1972 年은 우리나라 최근 歷史上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經濟目標을 成功的으로 달성하게 된다면 첫째 產業施設 확대로 인한 雇傭의 增大, 둘째 國民生活 수준의 향상, 세계 國際競爭力 강화를 통한 效率性的 提高, 네째 國力の 培養과 정치적 안정에의 直接·間接的인 기여 등의 效果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昨今の 國內外 經濟情勢 變동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 가능성 有無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輸出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基軸通貨인 「달러」貨의 平價切下, 일본 「엔」貨의 平價切上, 미국의 保護貿易主義 傾向의 강화 등은 앞으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1980 년대의 經濟目標 달성에는 上記한 바와 같은 世界經濟情勢의 變동으로 인한 어려움만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成長過程에서 露된 甚다한 문제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加一層의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그간의 국내 문제점이라면 첫째로 資源이 빈약한 여건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工業部門의 개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農業部門은 상대적으로 落後를 면하지 못했

다. 이것은 自由中國의 역사적 경험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農業部門의 集中開發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둘째로 지난 1972 년도에는 輸入을 크게 억제 한 결과 貿易赤字 폭이 상당히 줄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는 커다란 貿易赤字를 경험하고 있다. 더우기 머지 않아 元利金 償還額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한 開發途上國의 輸入抑制에는 한계가 있음을 생각할 때 수출의 급격한 신장이 요청된다.

세째로 지난 「8·3 經濟措置」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의 成長 「템포」는 늦출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國內貯蓄 基盤의 脆弱, 外換不足, 產業構造의 後進性 등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諸般 애로라 하겠다.

끝으로 지난 기간 중의 高度成長 추구로 말미암아 經濟 諸部門에는 高度成長過程의 副産物인 각종의 非效率性이 散在하고 있는데 安定成長을 위해서는 이러한 非效率性을 제거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產業 各 部門이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產業體制가 再編成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技術革新과 합리화를 통한 企業經營의 개선이 불가결하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諸般 당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누구인가? 정부는 1980 년대의 經濟目標을 私企業 經濟體制를 통하여 달성한다는 방침이므로 그 주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民間企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諸經濟問題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企業家가 이끄는 民間企業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本論文에서는 먼저 經濟發展 과정에 있어서 企業家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를 찾고 이어서 企業家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經濟發展 과정에서의 企業家의 역할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슈페터」(J. Schumpeter)와 「나이트」(Knight) 이외의 經濟學者들은 經濟發展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하여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아니했으나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많은 經濟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을 끌게 되는 근거로서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1人當 國民生産은 지난 5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87.5%는 技術革新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12.5%가 資本增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技術革新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주체가 곧 기업가이므로 經濟發展理論에서는 이러한 企業家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흔히 企業家와 經營者를 혼동하기 때문에 먼저 企業家와 經營者의 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經營者란 一定企業의 주어진 與件 下에서 계속적이고도 능률적인 企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따라서 經營者는 기업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生産水準을 效果的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알려진 가능한 모든 生産方法과 기술을 잘 결합·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生産要素를 낭비함이 없이 예정된 生産計劃表에 따라 製品을 생산하도록 監督하고 생산된 製品에 대한 合理的인 가격을 책정하는 일, 광고 비용을 결정하는 일 등이 바로 經營者의 職能이라 하겠다. 이에 반하여 企業家는 때로는 經營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經營者와는 다른 機能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企業家는 經營者와는 달리 항상 미래를 내다 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실제로 企業의 生産活動에 응용함으로써 新製品을 개발하고 原價

를 절감시키는 등 技術革新家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家는 현재의 舊態 依然한 生産方法이나 技術水準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開發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獨創力 그리고 과감성을 지닌 企業活動의 최고 指導家인 것이다. 經營學에서는 이들 企業家를 흔히 指導力 있는 者로 부르며 이러한 의미에서 企業家는 사실상 전통적인 企業理論에서 관심 밖의 존재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슈페터」(Joseph Schumpeter) 등 經濟學者들은 企業家와 經營者의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특히 그들은 經營者가 받는 보수는 賃金(wage)이며 企業家가 얻는 收入은 그들의 행동이 技術革新家로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利潤(profit)의 概念에 속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별은 주식회사 등 私企業制度가 高度로 발달된 최근에 이르러 더욱 더 명백해졌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한 경제의 發展過程에서 企業家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부터 논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發展理論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戰略要因으로서 勞動人口, 自然資源, 資本形成 그리고 技術水準을 들고 있다. 특히 後進國내지 開發途上國에서는 2大 戰略要因中 자본 형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기술면에서는 先進國이 개발해 놓은 고도의 技術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技術은 각각 그 나라의 經濟事情——즉 높은 賃金水準, 勞動力不足, 풍부한 資本形成, 大量生産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이들 先進技術을 그대로 후진국에 도입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경제 사정을 보면 勞動者의 契約條件이 不備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할 경우 그 기계의 생산性能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經營能力의 未熟으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生産要素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생산要素와 생산製品 간에 일정한 對應關係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고도의 先進기술을 도입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企業家は 위와 같은 與件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利潤의 감소라는 위험 때문에 先進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꺼리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企業家は 先進 기술을 도입하는 데 수반되는 애로를 타개하고 補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企業家 自身과 동시에 一國의 經濟發展을 위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創造的인 기술 革新家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企業家の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이론상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①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가능한 모든 經濟的 機會를 모색·포착하며 ② 포착된 經濟적 기회를 세밀히 分析·評價하며 ③ 企業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한 후 ④ 企業 활동에 필요한 세밀한 生産計劃 時間表를 준비·작성하고 ⑤ 企業의 經營 결과에 대한 最후 責任을 지는 한편 ⑥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 오는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⑦ 企業內에 使命感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企業活動을 고무하고 격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⑧ 또한 國內外的 經濟 사정에 대한 充分한 情報를 수집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善전 準備하여야 하며 ⑨ 企業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指導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企業家の 기능이 經濟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관하여 구성된 이론은 아직 없으나, 經濟發展이 단순히 物的·人的 資本단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企業家の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가정하면 經濟發展은 지축 의욕과 人口의 증가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構成되고 認定받는 理論은 아직 없다 하더라도 發展過程에서 일어나는 두가지 要素는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1人當 國民所得의 증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勞動의 生産性 증가, 新製品의 개발, 새로운 原資材와 工程의 채택 그리고 新技術과 광범위한 知識의 축적이 先行되어야 한다. 둘째는 生産能力의 創出과 그에 따른 有效需要의 창조가 상호 造化됨으로써 生産의 증가와 需要增加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가가 技術革新家로서 先進 기술을 後進國의 與件에 맞게 도입하는 데 따르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生産要素의 개발에 努力할 때 그는 곧 經濟成長 과정의 2大 要因中 生産能力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수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통하여 계획된 목표와 실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企業의 生産活動에서 즉각적인 意思決定과 미래에 대한 豫測, 計劃 및 統制를 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야 할 企業家の 機能이 하나의 중요한 生産要素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다른 開發途上國과 같이 안정된 經濟成長을 위하여 1人當 國民所得의 增大를 통한 國民 생활 수준의 向上, 그리고 生産能力의 확대를 통한 需要와 供給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 2, 3次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계속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開發計劃을 수행하는 동안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露呈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企業家の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몇몇 制約要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非效率性的의 문제이다. 이것은 企業家の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經濟적 非效率性은 주로 ① 國產原料의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原資材의 海外 의존과 技術 및 技術者의 부족, 그리고 電氣, 工業用水, 交通 등 社會間接資本의 脆弱性에 의한 높은 생산 비용 ② 國際競爭力的 약화로 인한 國內市場의 협소 ③ 낮은 1人當 國民所得 수준으로 인한 有效需要의 부족과 그에 따른 國內市場의 脆弱 등에 기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적 非效率性은 결국 生産製品의 원가에 영향을 주어 企業의 生産能力을 확대하는 데 制約 要因이 되고 있다. 실령 海外市場에 진출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춘 공장이 있다고 해도 製品의 原價로 인한 競爭力 약화 등으로 企業家は 사실상 生産施設을 最적 設備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制約 要因으로는 우리나라 企業家の 政府 의존 경향을 들 수 있다. 일부 企業家は 스

스로의 건전하고 創造的인 企業活動을 통해 성장하려는 것보다는 變則的인 利潤追求 경향이 있는 바 이러한 행동은 건전한 企業家精神을 좁히는 制約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企業들의 活動에 대해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協會 등의 經濟團體가 사실상 그 말은 바 구실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성격을 띤 團體나 協會는 그 機能面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업간의 共同 權益을 보호하고 企業의 의사와 이익을 代辯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國內外的 經濟事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한편 社會保障 활동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經濟的 非效率性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經濟開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企業家的 積極적인 活動이 요청되는 것이다. 企業家가 國產 原資材의 개발을 통한 原價節減을 꾀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고 과감한 先進技術 도입을 통하여 技術不足을 타개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技術革新家로서의 말은 바 역할을 다할 때 과거 日本의 企業家와 같이 고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데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맺는 말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開發途上國家는 안정된 경제 성장을 통하여 國民生活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目標 달성을 위하여 저마다 經濟開發計劃을 수립, 실시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주요 경제 성장 要因으로 등장하는 技術水準은 다행히 先進國이 개발한 기술을 모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開發途上國은 先進技術을 그대로 그들의 경제에 도입하여 生産活動에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非效率性이 散在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요인을 극복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企業家的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經濟發展理論에서 볼 때 企業家는 技術革新家로서 先進技術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생산 활동에 응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편 企業家는 新技術의 도입을 통한 勞動生産性의 증대를 기함은 물론 새로운 原資材와 新製品의 개발 그리고 풍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하여 生産能力 확대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經濟發展의 정도를 나타내는 供給能力의 확대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企業家는 미래에 대한 洞察力을 갖고 경제적 기회의 포착에 힘쓰므로서 雇傭增大를 꾀할 뿐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으로서 企業 전체가 使命感을 갖고 生産活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企業家는 건전한 企業精神이 아주 중요한 生産要素인 점을 銘心하여 단순히 經營者로서의 활동에 만족하지 말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 등 文字 그대로 「技術革新家」로서의 역할을 修行하는 데 努力해야 함은 물론, 아울러 社會倫理的인 면에서도 말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가에게 각종 情報提供 및 不確實性으로 인한 利潤 손실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技術教育制度를 수립하여 기술자 양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經濟外的인 非效率性을 제거해 줌으로써 企業家 스스로 독창력을 발휘하여 技術革新家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끝으로 기업가는 經濟發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企業家가 사회적으로 指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成長過程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副作用이라 할 수 있는 財閥의 등장의 문제이다. 이들 일부 新興財閥은 企業家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개인적 主觀下에 오직 경제적 效率性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中進國을 목전에 두고 國家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있는 韓國의 企業家는 自己企業만의 성장을 고려한 微視의 觀點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國民經濟 전체를 고려할 줄 아는 巨視的 眼目에서 활동하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